인터뷰 탤런트 권귀옥씨

문1 먼저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배우, 코미디언, 도예가 등 타이틀이 많으신데 워낙 다재다능하셔서 종친종보에 어떻게 소개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

저는 MBC 공채 2기로 데뷔한 탤런트에요. 제 동기로는 김자옥, 박원숙씨 등이 있죠.

문2 탤런트로 데뷔하시고 희극배우로 변신하셨는데요, 계기가 있으셨나요?

탤런트가 되었던 70년대 초엔 한국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전 우리나라가 반드시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비극배우, 눈물의 여왕이 대세였어요. 시간이 지나 선진국이 되면 반드시 희극배우가 빛을 보는 시대가 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즘 유재석씨 같은 분이 인정을 받잖아요? 미국의 밥 호프 같은 희극배우는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선진국에서 희극배우가 높은 평가를 받고 더 큰 역할을 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선견지명이 있으셨네요. 미래를 생각하고 사전에 준비를 하셨으니 말입니다.

저는 원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희극배우로 변신을 한 거죠. 그런데 희극연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비극을 마스터하고 숙련공 같은 연기의 달인이 되어야 희극을 할 수 있어요. 스스로 10시간 울어야 다른 사람을 1시간 웃길 수 있다고 할까요? 특히 희노애락을 쉽게 표현하기 어려웠던 시대라 웃기는 작업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문3 '땅딸이 이기동과 늘씬 미녀 미스 권'으로 인기가 최정상이셨는데요, 당시를 회고하셨을 때 즐거운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당시엔 키도 크고 아주 예뻤거든요? 아마 미녀 코미디언으로는 1호가 아닐까 싶어요. 키가 166cm라 당시 미스코리아 수준이었는데 160cm의 이기동씨와 콤비를 이룬 것을 재미있게 봐주신 거 같습니다.

문4 연기생활을 하시며 가장 큰 보람이 있으셨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제 분야에서 10년 동안 1등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에게 웃음을 주는 것으로 태어난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할 만큼 자부심이 있어요.

문5 한창 활동이 활발하셨을 때 미국으로 가셔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미국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요?

미국에서 자원봉사가 매우 활발한 것을 보고 저도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회단체에서 급식을 돕는 등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경험을 했답니다.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귀국 후에는 한국수양부모협회에서 20여 년간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문6 정말 대단하십니다.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한국수양부모협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친부모가 양육을 포기해서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임되는 아동들을 친가정회복을 목적으로 아동들을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동안 돌봄으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도록 돕는 사람들의 연대입니다

문7. 개인전을 5회나 하신 도예가신데요, 작품 활동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릴 때부터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며 지점토, 종이 흙으로 만든 작품이 900℃에서10시간 1,300℃에서10시간 불의 단련을 받으며 접시, 수저받침 등으로 나와 후원자들에게 선물을 했더니 좋아하며 주위에서 전시회를 권장하여 전시회를 하다가보니 5회가 되었습니다.

문8.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공여(지하철 공짜로 타는 여자)가 되어서 잘 늙어 가는 것이 계획이라면 계획입니다

늙어서 있어야 할 것은 돈, 건강, 취미, 딸이 있어야 하고요

잘 죽는 것도 복이잖아요.

문9. 연예인이시고 작품 활동 하시느라 바쁘신데요, 종친회 행사에도 참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는 연초 신년하례회 등 약 10년 정도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하면 나갈 계획입니다

문10. 종친회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우리민족의 좋은 혈통을 타고난 후손으로, 특히 권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며 인생을 잘 살고, 잘 놀고, 잘 늙으시기 바랍니다.

槐雲칼럼

비무장지대 지뢰도발과 연평해전의 교훈

■ 槐雲 權海兆(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지난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폭발로 수색대 장병이 중상을 입었다. 이번 지뢰도발 사건은 2002년도 서해 연평해전과 많은 유사 교훈을 갖고 있다.

첫째, 북한 대남침략의 지속이다. 북한은 그동안 서해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이어 공중 무인정찰기 투입과 이번에는 지상 DMZ에서 지뢰도발을 감행했다. 이번 지뢰도발 사건으로 남북분단의 현실, 북한의 대남전략 전술의 불변, 대화와 도발의 화전(和戰)양면전술, 비대칭전과 정규전을 배합하는 새로운 전쟁기획 등을 보여주었다.

둘째, 우리정부의 즉각적인 대응 미비와 발표지연이다. 연평해전 당시 북한 함정에 피격되어 배가 침몰되고 전사자 6명을 내어도 국가 안전보장회의가 4시간 30분 후에 열렸으며 우발적인 충돌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교전 다음날에도 금강산 관광선을 출항시켰고 대통령은 일본으로 출국하여 월드컵 결승전에 참관 했다. 이번에도 사건발생 4일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6일 후에 사건 전모를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사건의 진상을 조사 분석과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하필 사건발생 다음날 이희호 여사 방북이 예정되어 남북화해의 기대 때문인지 모르지만 통일부가 5일 남북고위급회담 제의와 박 대통령의 경원선 복원 기공식 행사까지 계획하였다.

합참은 대북성명을 통해 '북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11년 만에 서부 중부전선에 2개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발표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정전협정위반을 규탄하며 장성급 회담을 요청할 것이라 하였다. 그동안 군은 '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지원 지휘세력까지 타격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 이번에도 적 GP를 포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북한에 추가도발의 빌미와 확전(擴戰) 우려 때문에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땅히 도발즉시 모든 행사를 중지시키고 대응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셋째, 작전개념과 관측부실이다. 먼저 제2 연평해전은 교전규칙이 문제였다. 1차 해전 이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교전 규칙이 '북방한계선은 지키되 선제공격은 하지 말고, 밀어 내기 차단기동을 하고 전쟁을 확대시키지 말라.'고 수정했다. 사건 며칠 전부터 공격징후를 포착하고 당일도 먼저 사격을 할 수 있었으나 계속적인 상부지시로 경고만 하다가 결국 기습을 당하고 말았다. 이번 지뢰사건도 DMZ작전개념과 조기관측 부실이다. 이번 사건은 철조망이 뚫린 경계실패가 아니고 수색 매복 작전을 위해 출동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리고 매설지역이 지형적 차폐(레이더 표적 탐지에 장애 발생)와 수목, 안개 등으로 관측소에서 매설장면을 사전 관측을 못했다.

앞으로 우리군은 DMZ내 군사분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저지(경고방송, 경고사격, 조준사격)에서 격멸(조준사격)로 작전개념을 바꾸고, 수색정찰을 늘리고 다양한 응징조치취할 것이라 하였다. 문제는 영상 감시장비(TOD)가 설치되어 있으나 감시능력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지뢰매설과 부비츄렙(Booby Trap) 설치 등을 고려 DMZ내 최신예 관측 장비로 보강하여 지형차폐 없이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지뢰 보호 장비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장병들의 용감성과 전우애, 신뢰감이다. 얼마 전 "연평해전' 영화를 관람하면서 오직 조국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생활공간이 좁고 열악한 소형고속정을 타고 북한 경비정과 외롭게 싸우는 모습이 눈시울을 적셨다. 영화 끝 부분에서 6명의 전사자들이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피맺힌 절규를 했는데 아마도 앞으로 정부는 모든 과오를 과감히 개선하여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을 해달라는 충심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이번 지뢰도발사건도 당시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을 보면 국민들에게 감동과 신뢰감을 주고 있다. 2명이 쓰러진 긴박한 사항에서도 다른 전우들은 숨거나 당황하지 않고 부상병을 침착하고 신속하게 후송시키면서 북한 공격에 대비 엎으려 자세로 총구를 적 방향에 향하고 있는 장면은 평소 열심히 훈련한 결과이며 투철한 군인정신과 뜨거운 전우애의 발로였다. 특히 부상당한 김하사는 의식이 회복되자 밝은 표정으로 '다른 사람은 괜찮으냐?' 며 동료 전우들을 걱정하며, '다리가 없어도 할 수 있다' 며 영원히 대한민국 군인으로 남고 싶다는 말과, 다른 수색대원들도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적 도발에 수만 배를 보복으로 갚아주고 적 GP를 부셔버리고 싶다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사명감이 충일하였다.

다섯째, 국민들과 네티즌들의 반응의 변화다. 연평해전과 천암함 폭침 때만 해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했다느니 어뢰가 아닌 미군 잠수함에 의해 폭침되었다는 등 악의적인 의견이 분분했고 그로인해 남남갈등이 심했다. 그러니 이번 사건은 매설지역이 우리 쪽이 높은 통문이었고 북한지뢰와 일치하여 북한 소행의 증거가 확실한 탓인지 종북세력의 침묵과 여야 정치인들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모처럼 여야정치권도 대북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종전처럼 남남갈등 대신 오히려 대북 경계심에 촉진제가 되었다.

연평해전이나 이번사건에 유엔과 미국도 '정전협정 위반'이라 비판하고 있듯이 모두가 북한의 명백한 휴전협정 위반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북한의 시인이나 사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또다시 도발하면 반드시 말보다 철저한 책임추궁과 강력한 보복이 있어야한다. 이번 사건은 또 하나의 국지전으로 북한이 언제 어떤 형태의 전쟁이라고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군과 정부는 당분간 남북대화의 꿈을 접고 최근 거론되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사이버 공격을 포함하여 각종형태의 비정규전과 정규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군인은 전쟁을 위해 존재한다. 북의 어떤 침략에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대북 안보문제는 여야 정치권도 의견이 다를 수 없고 국민 모두가 결연한 자세로 한마음이 되어야한다. 특히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북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 주어야 한다. 지난 60여 년간 북한의 끊임없는 무력도발로 수많은 남편, 아들, 동생들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제 국가도 국민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 하려면 국민을 위하고 행동해야 한다. 지난 연평해전에서 희생용사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진정한 위로를 보낸다. 그리고 이번 지뢰 사건으로 부상당한 하사관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

이태섭 대성씨문중 상임공동대표 "5·16민족상 수상"

이태섭 전 과기처 장관(대성씨문중 상임공동대표)은 한국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후학양성에 힘쓴 공로로 '제50회 5·16민족상' 과학기술개발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8월 12일 수상하였다.

이태섭 전장관은 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회장을 한국인최초로 역임했으며, 제10,11,13,15대 국회의원과 정무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이사장과 한국 20대 성씨문중협의회 상임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다.

대성씨문중협의회는 권정달 총재와 이태섭이사장이 주선하여 2012년 11월 15일 결성하였으며, 구성은 가락김씨, 밀양박씨. 전주이씨, 경주김씨, 경주이씨, 경주최씨, 진주강씨, 광산김씨, 파평윤씨, 청주한씨, 안동권씨, 인동장씨, 금령김씨, 순흥안씨, 동래정씨, 안동김씨 등(인구수 순)이며 신라김씨연합대종원이 가입되어 있다. 〈편〉

복야공파부녀회 정례회

안동권씨복야공파부녀회(회장 권대란)는 8월 17일 오전 11시 안동시 평화동 청운식당에서 부녀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臨時總會)를 개최하였다. 권영애 총무의 개회선언에 이어 시조묘소(始祖墓所) 및 파조단소(派祖壇所) 망배(望拜)와 상읍례(相揖禮)가 있었다.

권대란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이 참석 해 주어 고맙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부녀회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부녀회장도 앞으로 부녀회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부녀회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은 후 송채령 부회장의 덕담(德談)에 이어 권남희 안동시의원의 덕담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권기덕 신임파종회장이 유고로 불참하여서 권계동 전임파종회장이 늦게 도착하여 간단한 인사말을 하였다. 파종회 전임회장은 파종회총회의 결의에 따라 부녀회가 조직되어 만 5년이 지나도록 회원 모두가 많은 노력을 하여 목적에 부응하는 큰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말 하였다.

이제 부녀회의 모든 내용을 신임파종회장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인계를 하였다고 하며, 그간 더 열심히 도우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앞으로 권기덕 신임파종회장과 권대란 부녀회장이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하여 보다 더 알찬 부녀회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앞으로 자신도 부녀회운영 전반을 열심히 도우겠다고 말 하였다.

협의 안건은 첫째, 전임부녀회장으로부터의 사무인계는 고문단회의 결과대로 조용히 기다려 왔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인계해주기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둘째, 8월의 월례회는 안동종친회 주최 복회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였다. 셋째, 10월 초순경 부녀회원 모두가 함께 야유회를 갖도록 결정하였다. 넷째, 일손이 필요한 회원들을 비롯하여 족친이 아닌 비회원들에게까지 농번기인 여름철과 가을철에 일손 돕기를 하기로 회장단을 비롯하여 최인숙, 이월자, 정영숙, 심정자, 권춘자, 송숙남 외에 다수가 참가하기를 희망하여 적당한 시기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7월의 정례회(定例會)를 마치고 <청운식당>에서 화기애애(和氣靄靄)한 분위기 속에서 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정담(情談)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후식(後食)으로 수박과 기지떡을 먹는 것으로 푸짐한 점심밥상이 되기도 하였다.

〈부녀회총무 권영애〉

권혁우(權赫雨) 도선사(導船士) 자격 취득

권혁우씨(權赫雨 56, 경북 포항, 좌윤공파 36세손)가 지난 7월 '해기사의 꽃'이라는 불리는 導船士(도선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씨는 부친 권오표씨와 모친 정재종의 차남으로 태어나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를 졸업하고 외항선사의 항해사와 선장으로 20여년을 근무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해기사들의 고시인 도선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하였다.

앞으로 권 도선사는 우리나라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부두에 정박할 수 있게 선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손귀익여사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포항 권혁두〉

권문동상 탐방기〈7〉

■ 권영혁(백송한약방 대표)

권태순 장군

동상(강릉 통일 공원)
대한민국 태극 무공훈장

△ 권태순 장군 동상

권태순 장군은 강릉 출신이다. 6·25 전쟁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조국수호 과정에서 순국한 고(故)권태순 장군을 추모하는 동상 제막을 지난 2012년 10월 26일 강릉 통일 공원에서 거행했다.

강릉시는 국민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국가 안보 및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장군의 군인 정신과 빛나는 전공을 후세에 알리고자 사업비 1억 4천만원을 들여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통일안보공원에 높이 5.8m의 권태순 장군 동상을 건립했다.

권태순 장군은 1946년 육군사관학교 제2기로 졸업해 소위로 임관한 뒤 오대산 지역 북한군 유격대 섬멸을 비롯해 6·25 전쟁시 보병8사단 작전참모로 낙동강 방어선 영천전투에서 성공적 작전 수행으로 불리했던 전세를 역전시키고 반격해 38선을 돌파 점령하고, 압록강 부근까지 진격하는 공을 세웠다.

또 6·25 전쟁의 전환점 횡성전투에서 중공군 인해전술을 방어해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최후까지 용전분투했으나 1951년 2월 12일 장렬히 전사했다.

• 동정

▲미국경제주간지 포브스가 지난 8일 발표한 전 세계 기술분야 100대 억만장자에 우리나라 **권혁빈**씨(스마일게이드 최고경영자)가 34억 달러로 60위에 올랐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은 지난 12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240명에게 장학금 4억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또한 지난 31일 본점 강당에서 열린 창립 54주년 기념식에서 권선주 은행장 임직원 등이 「통일 나눔 펀드」에 참여했다.

▲**포스코그룹 권오준회장**과 계열사 임직원 2100여명이 지난 10일 「통일 나눔 펀드」 기부에 동참했다.

▲**권계주 대종원부총재 겸 전 국청장년협의회장**은 지난 7월 1일자 (주)리트코 국내영업총괄대표 부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안동권씨 추밀공파 부회장 이사직 등 문사 발전에 관심과 적극 기여하고 있다.

▲KBS는 지난 15일 광복절 중앙 경축식과 국민화합대축제 우리 기쁜날 생중계에서 **권순봉 독도경비대장 경감** 및 독도경비대원 4명이 함께 한 6박 7일간의 백두산 대장정의 장면을 방영했다.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기회총괄반장**은 메스르 사태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첫 단추를 끼우는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재삼 깨닫았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권희석 SM면세점 대표(하나투어 부회장)**은 만약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면세한도를 규제하더라도 500~600달러 수준의 중소·중건기업 명품 브랜드 발굴해 맞춤형 영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